



오늘의 날씨와 생활

5월 25일 목요일 음 4월 6일 (13물)

목요일론

기상정보

흐림



제주는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5-17℃, 낮 최고기온은 22-26℃로 전망된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 for Jeju, Seosan, Goseong, and Seogwipo.

Table with sunrise/sunset, moonrise/moonset, and tide information.

식중독지수 주의, 감기가가능지수 관심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Table with daily weather forecast for tomorrow and the day after.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월드뉴스

강간범 죽인 멕시코 여성 정당방위 인정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멕시코에서 자신을 성폭행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남성을 살해한 뒤 정당방위를 주장한 여성에 대해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9일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을 당시 눈물을 흘리는 루사나 루이스(오른쪽). 연합뉴스

멕시코주 네사우알코요틀 지방 법원은 23일(현지시간) 루사나 루이스에 대한 살인 혐의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고' 협박하던 성폭행범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무죄 선고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루이스에게 징역 6년 2월 형을 내렸던 지난 15일 판결을 뒤집는 결정이다. 이는 검찰에서 살인죄 공소제기(기소) 방침을 철회하면서 나온 후속 법적 절차다.

루이스는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 법정 밖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돼야 했을 일"이라며 "제 잘못이 아닌 일에 무죄를 인정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현지 일간지 엘우니베르살은 보도했다.

남부 오악사카 원주민인 루이스는 2021년 5월에 자기 거주지에 침입한 한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 루이스는 이후 '자신을 죽이겠

지역 인권단체 '노스케레모스 비바스네사'는 트위터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거부된 것과 같다"며 사법부를 성토했기도 했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제주 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한욱 편집국장 이윤형.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오경수 제주올레 전문위원

최근 제주올레의 '길 위의 인문학 과정' 프로그램에 명예직 제주홍보대사로 고향 제주에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고두심 배우, 양중훈 사진작가, 문희경 가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길 위에서 나는 대화 속에서 그분들의 깊은 제주사랑과 실천하는 행동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필자도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그들은 제주를 떠나 타향에서 활동 중이지만 제주인으로서 강한 자부심과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고향 제주를 알리는 일이 어떤 기꺼이, 심지어 자신의 본업

명에 제주홍보대사들로부터 배우는 고향사랑

까지 미루면서 제주 홍보요원을 자청하는 용기 있는 모습에 무한한 감동을 받았다.

고두심 배우는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제주가 낳은 최고의 국민배우가 아닌가. 제주와 관련 있는 드라마 '거상 김만덕'과 '우리들의 블루스' 등에서 제주인의 참모습을 연기로 보여 주었고 또한 직접 해녀 역할을 하며 제주 해녀에 대한 공감대를 알리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

양중훈 사진작가는 30년째 상명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진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에 제주인으로서 자부심과 2016년 제주 해녀를 유네

스코에 등재하는 데 일조했고 또한 제주 해녀의 위대함을 사진전을 통해 서울시청, 삼성역 등에서 개최했다. 최근에는 일본 오사카에서도 전시했다. 향후 계획을 물었더니 내년에는 미국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유럽에서도 전시할 것이라고 야심 찬 포부를 밝혔다.

서귀포시청 홍보대사인 문희경 가수이자 배우는 예술·문화계에서 20년 이상 일하고 있는 재경 제주인들과 함께 여름방학 때면 도내 고교생들에게 대중문화캠프를 통한 재능기부를 10년 넘게 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제주에서 태어나서 유년시절을 보낸 이로 고향을 위해 재능기부할 수 있다는 건 최소한의 도리이자 기본 일이다"라고 했다. 지금도 '고향사랑기부제' 모델로 SNS 등에서 제주를 알리고 있다.

이렇듯 제주를 사랑하는 이분들의 모습을 본받아 필자 역시 민간 제주홍보대사처럼 내 고향 제주를 알리고 있다. 지난 40년 직장경험과 CEO 20년의 경험을 토대로 작년부터 서울의 CEO들을 제주올레의 '길 위의 인문학 과정'에 초대해서 함께 걸으며 힐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인들에게 SNS로 아름다운 제주의 풍경 사진들을 보내고 제주에 여행을 오는 분들에게 맛집, 관광지 여행 지도를 그려 주며 인맥을 연결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도 함께 하고 있다.

끝으로 우리 모두가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의 지인들에게 알리고 내가 가진 작은 재능이라도 기부하고 함께 나눔을 몸소 실천한다면, 제주가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지역이 되리라 확신한다.

열린마당

공공하수도를 지키기 위해 가져야 할 책임



양은비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건물에서 나오는 각종 생활하수는 배수설비를 거쳐 공공하수도를 통해 최종적으로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다. 만약 개별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이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해 오수의 일일 배출량이 10t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일정량 이상의 오수가 발생하는 경우 공공하수

처리장 증설 비용을 이러한 원인을 일컫는 소유자가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따라서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향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 해당 건물의 오수 발생량 변동이 생길 것이고 기존 오수량보다 증가할 경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소유자가 응당 부담해야 하는 공공하수처리장의 치료 비용으로 볼 수 있겠다.

배수설비에 대해 문제가 생겼을 때만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발생량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도 있는 중요한 설비로 인식해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개인들이 본인 소유의 건물·토지를 소중하게 생각하듯, 우리 모두에게는 더 나은 환경과 공중위생을 위해 공공하수도 시설물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

교통안전의 첫 출발, 안전벨트 착용부터



박규남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2014년에 차량 내 안전 벨트를 하지 않았을 경우, '경보음'이 울리도록 의무화했고 2018년부터는 운전자는 물론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법적 조치가 강화됐다.

이러한 제재로 인해 안전벨트 착용률은 점점 상승하고 있지만 실제 단속 시 심심치 않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를 목격하게 된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자칫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상자 비율은 운전자는 2.9배, 동승자는

3.4배에 달하고 특히 19세 미만의 경우 6.6배로 높아진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2년 제주지역 안전띠 착용률이 77.38%로 전국 17개 지자체(평균 83.02%) 중 13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뒷좌석 착용률은 28.57%로 나타나 여전히 안전벨트 미착용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제주자치경찰단에서 안전벨트 착용률 제고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관계기관과 안전벨트 착용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5월이 되면 교통량이 늘어나며 실제 교통사고가 증가한다. 언제 자신에게 닥칠지 모르는 사고로부터 안전을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안전벨트 착용일 것이다.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까지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한 첫 출발을 하길 바란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품질이 우수한 국내육성 [신품종] 감귤 포트묘목 분양. [경쟁력 있는 우량품종, 국내 신품종 육종 및 고품질 포트묘목 공급]

감귤묘목·포트묘목 분양. ※ 만감류: 윈터프린스 1년생~2년생, 카라향 1년생, 천혜향 1년생, 한라봉 1년생, 미니향 3년생, 제라몬 3년생, 미니몬 1년생, 하갈(아마나스) 1~2년생

최신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국내육성. 전량 좋은 신품종 감귤 만감류 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